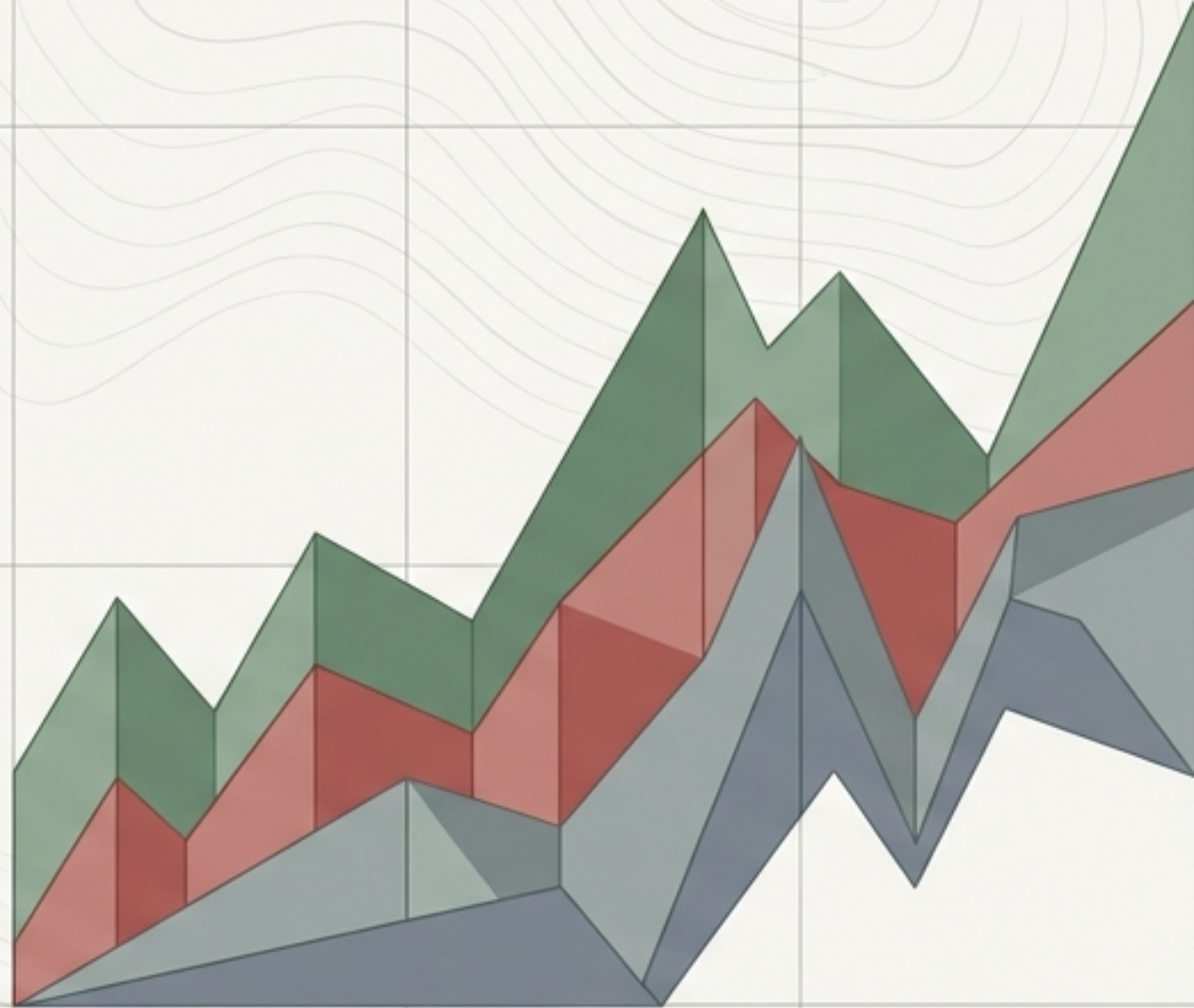


Date: 2026.09.29

글로벌 시황 브리핑

금리 쇼크와 지정학적 리스크 속
글로벌 증시 디커플링



2026.09.29 핵심 관전 포인트

1

[Macro]

美 국채 10년물 5.2% 육박

(고금리 부담 지속)

2

[Risk]

이란 '7일 계획' 거부 & WTI \$92 돌파

(인플레이션 우려)

3

[Domestic]

코스피 6,900 붕괴

(반도체 투심 악화 및 4조원 매물 출회)

4

[Global]

中 증시 반등 & 글로벌 자금 유입

(4년 만의 '중립' 전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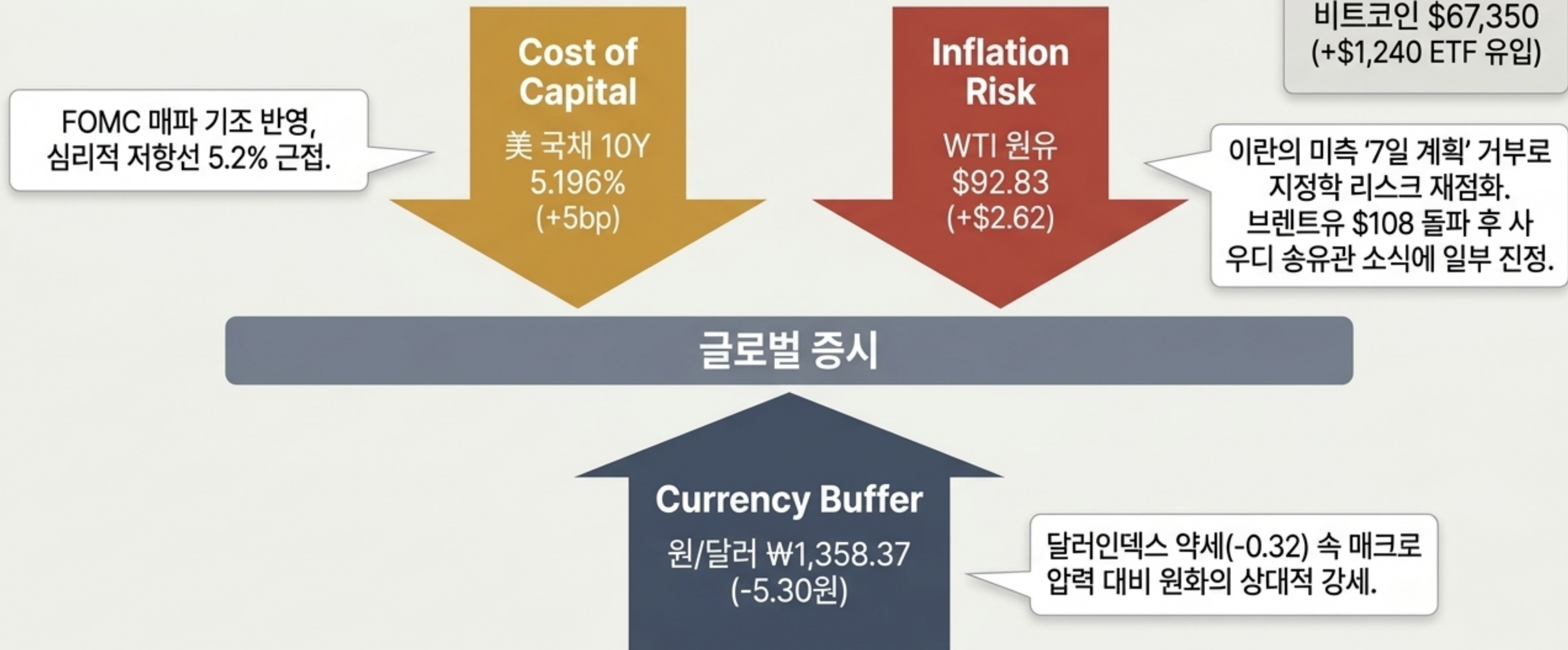
5

[Catalyst]

10/1 PCE 분수령

(방향성 탐색 구간)

매크로 압력 게이지: 인플레이션과 자본 비용의 동반 상승



미국 증시: 국채 금리 쇼크가 짓누른 대형 기술주

NASDAQ
27,068.72
(-0.92%)

S&P 500
7,743.41
(보합)

DOW JONES
51,828.62
(보합)

하락 주도

상승 이상치

생활필수품
(-0.53%)

유틸리티
(-1.70%)

부동산
(+7.4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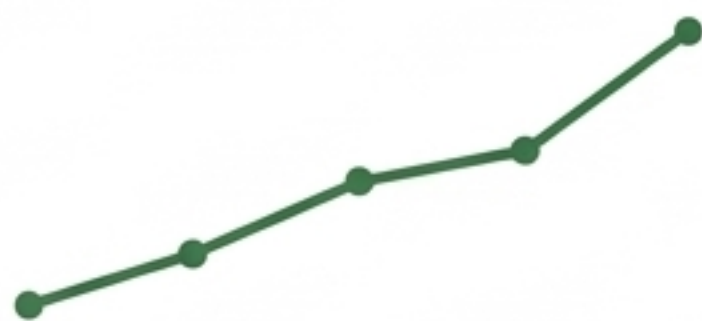
에너지
(+2.00%)



금리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기술주 전반의 급락을 촉발. 단,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 홀로 강세를 유지 중이며, JP모건은 '조정 국면에서도 기술주 선호' 투자 논리를 유지.

글로벌 증시 디커플링: 기술주 약세 vs. 지역별 호재

🇨🇳 중국 증시의 턴어라운드



항셍 +1.59% (22,944) |
상하이 +0.45% | 선전 +0.62%

- 글로벌 펀드, 4년간의 매도세 종료 및 '중립' 비중 확대 전환.

🇪🇺 유럽의 지정학적 반사이익



DAX +0.80% (24,998) |
FTSE 100 +0.79%

- 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반영.

🇯🇵 일본의 환율 효과



닛케이 225 +0.46% (56,734)

- 엔화 약세 기반 수출주 중심의 견조한 상승세.

매크로(금리/유가) 부담은 동일하나, 개별 지역의 '정책 및 가치주' 모멘텀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며 글로벌 디커플링 장세 연출

코스피 6,900 붕괴: 연휴 직후 쏟아진 매물 폭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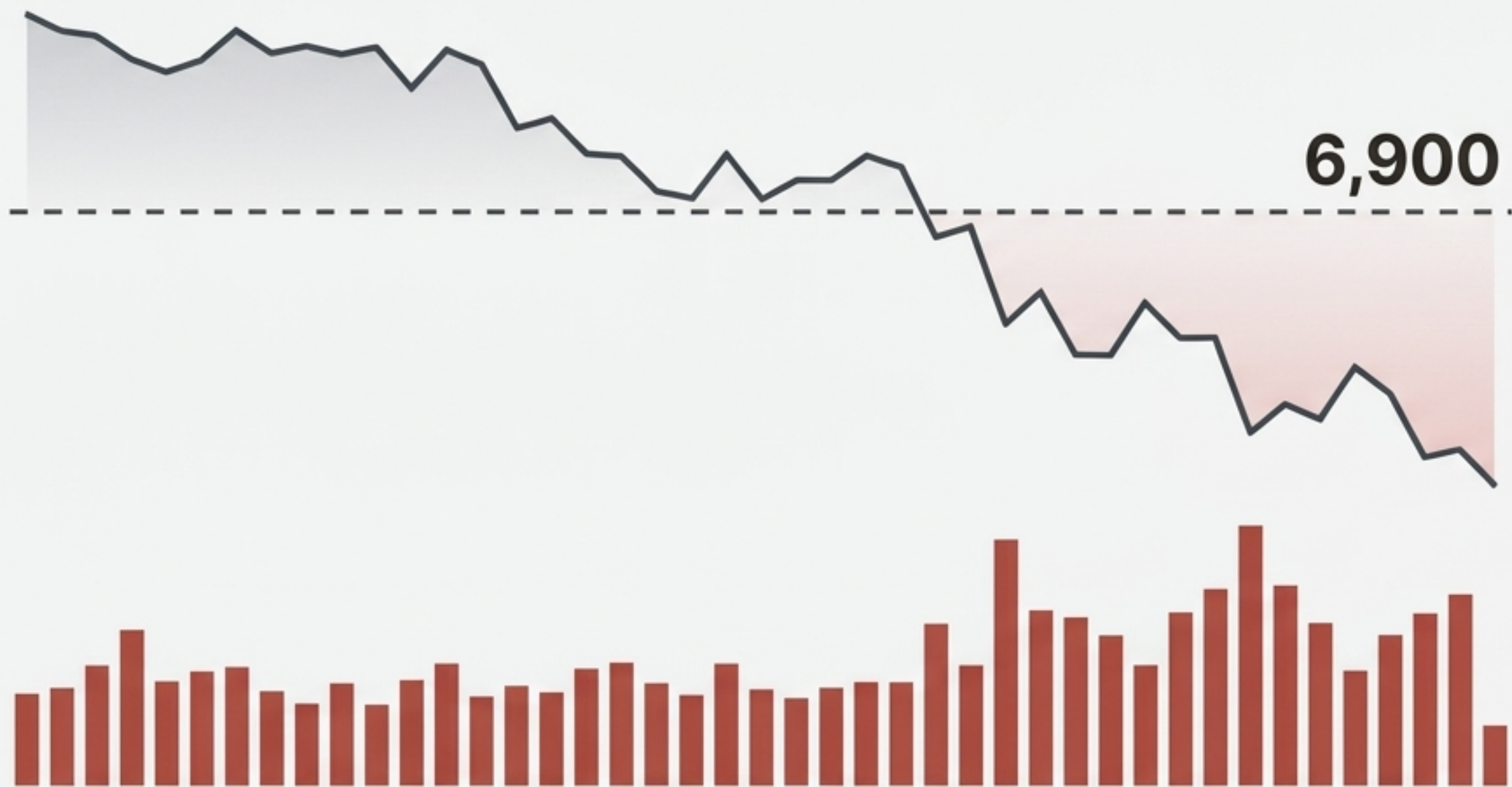
KOSPI

6,889.74

(-0.00% / 7,000선 이탈
후 추가 하락)

KOSDAQ

846.58



[매물 출회]

연휴 직후 외국인과 기관의 3~4조 원
규모 대규모 매도 공세 집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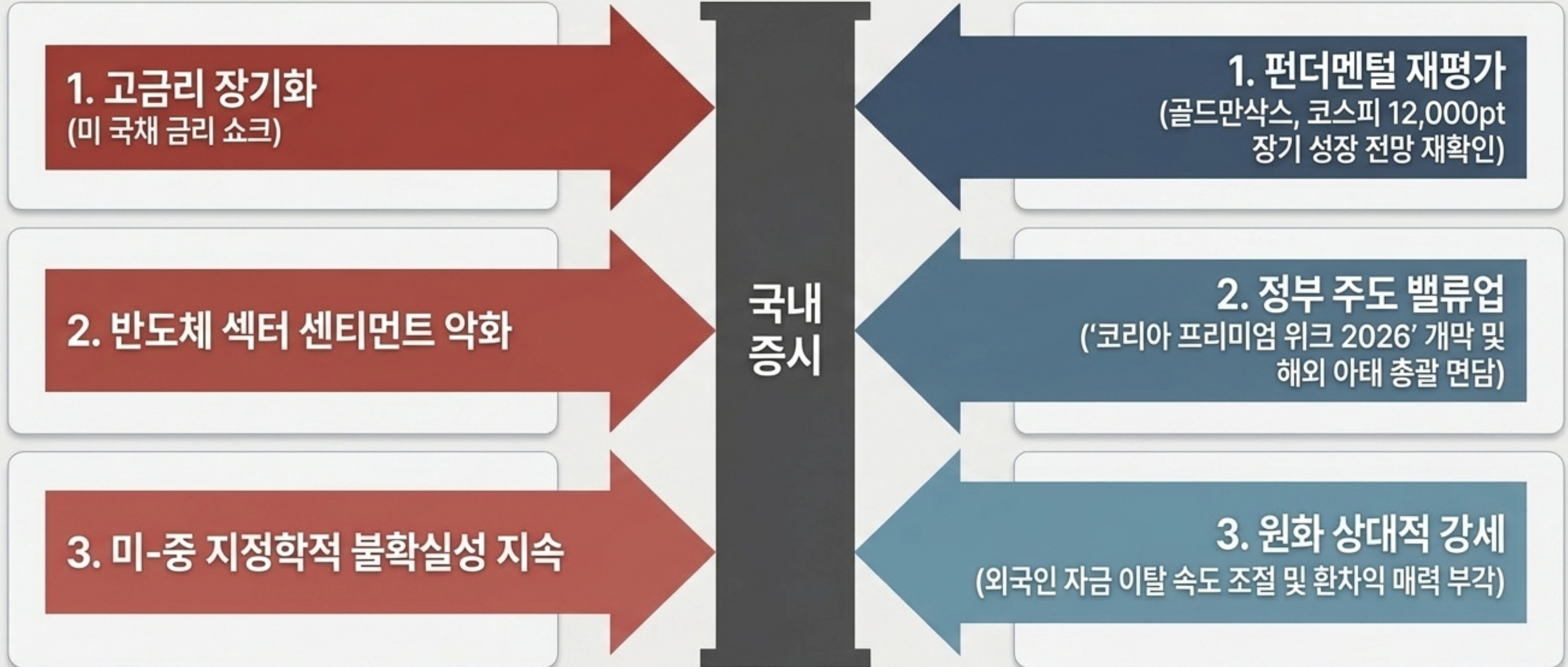
[반도체 투심 붕괴]

삼성전자:	270,000원
SK하이닉스:	1,768,000원

대형 반도체주 5%대 급락이
지수 하락을 전면 주도.

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미-중 불확실성이
투심을 극도로 위축시킴.

국내 시장의 구조적 줄다리기: 단기 악재 vs. 장기 모멘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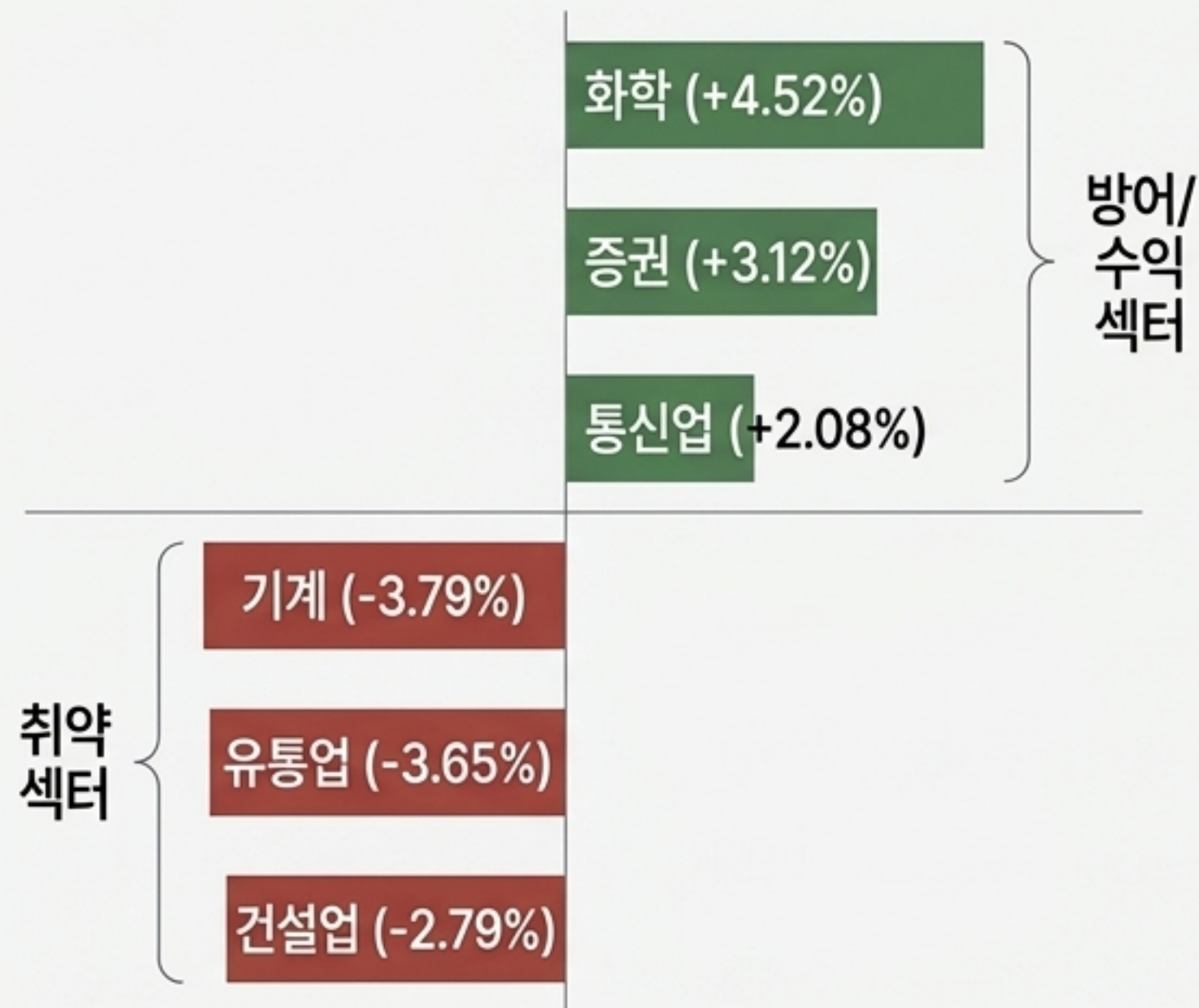
시가총액 상위 지도 및 업종별 자금 순환

[Top 10 Snapshot (1578조~30조 규모)]



└ 최상위 시총 종목 전반의 하방 압력 지속.

[1W Sector Health]



주간 촉매제 캘린더: 10월 1일 매크로 분수령

수 9/30

미 CB 소비자신뢰지수
(예측: 90.1)

목 10/1 (The Bottleneck)

🎯 🇺🇸 Core PCE (예측: 0.3% / 3.6%)
- 인플레이션 궤적 최종 확인.

🎯 🇺🇸 GDP (예측: 1.5%)
- 경기 침체 우려 검증.

🎯 🇺🇸 ISM 제조업 지수 & 🇰🇷 소매판매 지수.

금 10/2

미 신규 실업수당
청구건수

유럽 실업률

PCE와 GDP 데이터 발표 전까지 글로벌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 베팅은 유보될 전망.

액션너블 전략 플레이북 (Actionable Strategy Playbook)



방어적 대응 (Defend)

유가 급등(\$92 돌파) 및
금리 상승에 따른
고베타(High-beta)
익스포저 축소.

인플레이션 헷지 자산 및
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
안정화 필수.



신규 매수 자제 (Hold Fire)

10월 1일 목요일 Core PCE
PE 및 GDP 지표 발표 전까지
신규 자본 투입 보류.

금리 궤적에 대한 명확한
데이터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.



반등 트리거 탐색 (Hunt)

원/달러 환율(W1,358)의
상대적 강세 추이 지속 모니터링.

환율 안정 시 낙폭이 과대한
반도체(삼성전자, SK하이닉스)
중심의 외국인 자금 선제적
복귀 가능성 타진.